

다민족 크리스천들의 연합 기도로부터

여성 크리스천 리더들의 영향력 향상 주제로 다민족연합 조찬기도회 열려

코리안·라티노커뮤니티협회(이하 KLCA, 대표 김태현)와 타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다민족 연합 조찬기도회가 11일 오전 8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여성 크리스천 리더들의 영향력 향상’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한인 교계 지도자들과 미국, 베트남, 중국, 라티노 등 다민족 크리스천 리더들이 함께

모여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키노트 스피커로 나선 아주사 퍼시픽대학교 교육학 헬렌 이스터링 윌리엄스(Rev.Dr.Helen Easterling Williams)학장은 9년 전 일어난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사건과 최근 논란 끝에 취소된 코란 소각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종교가 다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

도하고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윌리엄 학장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짜라(역대하 7장 14절)는 말씀을 들며 “하나님께서 영적 위기에 처한 미국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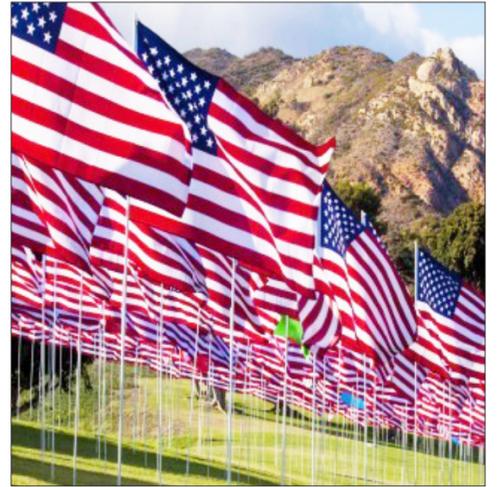
기도회는 마이클 존스 목사(Michael Jones, CEO of Crenshaw Chamber of Commerce)의 소개, KLCA 김태현 대표의 환영 인사, 레오나드 잭슨 목사(Leon-

ard B. Jackson,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 시니어 어드바이저)의 개회연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 제2대 커뮤니티평화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오랫동안 커뮤니티간 화합과 봉사를 실천하며, 미국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인랜드 지역에서 십자가 행진을 진행했던 서머나장로교회 담임 최열리 목사와 로코 포 크라이스트(Loco for Christ)의 아트 피에로스 목사가 선정됐다.

〈지재일 기자〉



©Ron Hall, Pepperdine University

페퍼다인대학교 9.11 희생자 추모

말리부 해변에 위치한 기독교대학, 페퍼다인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 총장 Andrew K. Benton)는 9.11 테러사건 9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미국 성조기 3천여 개를 캠퍼스 내 잔디밭(Pacific Coast

Highway and Malibu Canyon)에 전시했다. 페퍼다인대학교는 2001년 9.11테러 이후부터 매년 학생, 교수, 스텝, 발룬티어들과 함께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테러사건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재일 기자〉



KLCA 김태현 대표가 아트 피에로스 목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최열리 목사에게 커뮤니티 평화상을 전달했다. ©지재일 기자

갈수록 거세지는 ‘코란 소각’ 후폭풍

미국의 소규모 극우 교회가 9.11 테러 9주년을 맞아 계획했던 코란 소각 사건으로 촉발된 종교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무슬림들의 반발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어 우

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11 테러 추모식은 끝났지만 테러 존스 목사가 촉발한 ‘코란 화형식’의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에서는 무슬림 분리주의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했다. 신문은 “테러 존스 목사의 코란 소동이 반정부시위대를 자극해 교회와 경찰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유혈사태는 이 지역에서 20여년째 지속된 분리 독립 시위와 달리 코란 훼손 행위에 대한 반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서 반미, 반기독교 시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코란 소각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해 2명이 사망했다. 시위대는 “미국에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미시위를 벌였다.

◇이란 종교지도자, 코란 모욕자 살해 위협

13일 ‘그랜드 아야톨라’로 불리는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2명은 코란 소각 계획을 언급하면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코란을 모욕한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비난하며 파드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내놓아 코란 훼손 행위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파드와에 공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알

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도 코란 소각은 ‘전례 없는 범죄’라고 비난하며 이번 계획에 미국 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정부가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전세계 무슬림들로부터 단호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현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KIMNET
KOREAN INTER-MISSIONS NETWORK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IPPCAN 2010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10.18 (월)~21(목) 주제: 모슬렘과 북한을 기도로 품자! Praying for Muslims & N.K.!

등록: 1)일반 등록비 (\$80), 선교사 등록비 (\$60) 18일 오후 4시 등록, 식사 및 책자 제공
2)호텔은 개인 예약 Anaheim Park Hotel, Fullerton, CA www.anaheimparkhotel.com 714-992-1700
3)등록: 인터넷 등록 www.gimnet.net/reg2010IPPCAN (Paypal 결제),우편 등록, 직접 등록:은혜한인교회

contact: Joseph 목사 @ 714-767-8234

주 강사: 김용의 선교사, 김종필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
주제 강사 목사: 고승희, 김남수, 박기호, 박희민, 방지일, 윤재관, 이삭, 임현수, 정민용, 최경욱, 최복규, 한기홍, 호성기
선택 강사 선교사: 김성간, 김경환, 김지성, 김철용, 김홍역, 김향철, 김평안, 박상배, 양태철, 엄경섭, 윤재관, 조재선, 최재영, Ken An, Sam Kim, 백운영 (토론토 특별)

장소: GMI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446-6200)
주최: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주관: GMI (은혜한인교회), 공동주관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마스선교교회, 베델한인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안디옥교회, 큰빛교회, 프라미스교회
공동주관단체: AMAC (남가주선교협의회), COME, Elijah Kim Ministry, GP USA, INTERCP (인터콕), SEED, Silkwave, SON, WMM (순회선교단)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베델한인교회 청년들이 특별찬양을 드렸다. ©박상미 기자

창립기념을 선교작정 주일로 뜻 있게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는 9월 12일 창립기념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 온 성도가 선교에 비전을 품고 뜻을 모아 헌신하는 기회로 삼았다.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베델한인교회는 앞으로 매년 창립기념 주일을 선교주일로 삼아 교회의 마지막 사명인 '선교'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12일 주일 1~3부 예배에서 그간 베델한인교회의 선교활동과 앞으로의 선교계획을 나누는 성도들은 1년간 선교헌금을 작성하는 등 직접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손인식牧사는 "베델한인교회는 건축을 다 끝냈고 남은 과제가 있다면 오로지 선교 뿐"이라며 "그

간 교회 '건축자'였던 성도들이 '선교자'로 바뀌는 주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인식 목사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성도들과 외치며 "이렇게 하나님이 34년을 역사하셨다"며 "1, 2대를 거쳐 현재 3대의 담임목사가 있지만 그러나 친히 성령께서 목회하셨다"고 소감을 말했다. 선교주일

을 위해 특별히 플린스대학 선교학과 박기호 교수가 초청돼 설교했으며, 박기호 교수는 전쟁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삶을 통해 바벨론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의 법령이 내려진 사건을 본문(단 6: 1~4

절)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었다.

박 교수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할수도 없는 나라였지만 다니엘의 삶을 지켜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법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며 "선교에 대한 환경이 더욱 적대적으로 바뀌

고 있는 요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호 교수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으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고 상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으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한 사람이었다"며 "가문이 좋고 학문이 높으며 부유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이 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설교했다. 한편 창립 34주년을 선교주일로 예배드린 베델한인교회는 세 가지 주요 선교전락을 세웠다. 첫째로 현재의 교회와 협력하는 파트너십 미션

이다. 현지에서 성장한 교회와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손인식 목사는 "한인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선교사역을 시작하지 30~40년이 흘렀다"며 "그때의 선교 상황과 지금은 현저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저개발 국가의 선교센터 건립이다. 이 센터는 북합미션센터로서 주중에는 학교와 보건소 케어센터 등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으로 활용된다. 셋째로는 마하나임 미션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들을 중보하고 지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 세워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베델한인교회는 과테말라 미엘교회 협력 원주인 선교, 페루 꼬노 노르떼교회 협력 원주민 선교,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캄땡, 캄보디아 지역), KCC 북한 선교 햇볕대회, 북한 지하교회 지원육성, 차세대 선교사 지원육성, 세계 선교 연합기도운동 등의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베델한인교회 설립 34주년 맞아 전 성도 '선교자'로 작정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 1. 기초영어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무료
-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3. 아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밋 도와 드림)
- 6. 졸업후 직업 추천 해드림 (유태계 ORT대학)

※영주권자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성철 목사를 초청, 2010 가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는 '구원받은 사

한 이성철 목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는 '종교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영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했다.

"성령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증거는 첫째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는 자, 둘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바뀐 자, 셋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임니다.

흔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저주와 버림을 받았지만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 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이성철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부흥회 인도

람, '기도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은혜' 등의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성령님의 능력으로(사도행전 10장 38절)'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



이성철 목사.

"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나"라고 반문한 이성철 목사는 "인간은 성령충만이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연합함을 인정하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목사는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지재일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목회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KPCA서노회 정기노회서 4명 목사안수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일꾼들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다.

김용호 전도사, 김중호 전도사, 김병진 전도사, 신태휘 전도사 등 네 명은 지난 9일(목) 해외한인장로회서노회(노회장 박성규 목사) 정기노회가 주님세운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이날 안수식에서 설교한 강신권 목사는 “목회에는 지우개가 없다”고 말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로서 정직한 목회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을 당부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딤후 2:25)’

강신권 목사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확실한 신학의 토대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며 정직한 윤리를 가지고 목회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에 목회인생을 돌아보며 지우개로 지우는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은 네 명의 주의 종들에게 “

항상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진심어린 당부를 거듭했다. 노회장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부르셨던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 무리를 사랑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충성하는 목사가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전 노회장 김광철 목사 또한 “평생 ‘목사’라는 직분을 잊지 않는다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한편 9월 9일 주님세운교회에서 개최된 해외한인장로회서노회 제 75회 정기노회는 오전 9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성찬예식, 4차례의 회의, 목사안수식,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노회장 박성규 목사는 “정기노회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며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님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 이목을 끄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삼미 기자〉



9일 KPCA서노회 목사들이 안수를 베풀고 있다. ©박삼미 기자

■ 김넷 주최,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10월 18일부터

모슬렘과 북한을 위한 기도성회 열린다

30년 후 영국에서는 모슬렘 인구가 250만으로, 미국에서는 5,000만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슬렘과 심각한 기근과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을 위해 한인들이 앞장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김넷 총무단 이현석 목사.

세계선교동역자네트워크 김넷이 주최하는 모슬렘과 북한 선교를 위한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10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선교의 원천은 기도이며, 기도로 열방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취지 아래 개최되는 이번 기도성회는 김용의 선교사, 김종필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가 주강사이며 고승희 목사, 박기호 교수, 박희민 목사, 김남수 목사, 한기홍 목사 등 선교 및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전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김넷은 8일 미주복음방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방을 품



(왼쪽부터) 김넷 사무국 이성철 목사, 총무단 김정환 선교사, 이현석 목사, 사무총장 이은무 목사, 선회선교단 김정화 선교사, GP선교회 백운영 선교사. ©지재일 기자

는 기도성회의 행사 취지 등을 설명했다.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이 시대 선교에 대한 동기를 부여(Why)했다면, 김넷은 어떻게(How) 세계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김넷 이은무 사무총장은 “선교는 기도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번 성회에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순회선교단 김정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각 선교회, 전문단체, 교회들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개교회 중심에서 함께 하는 연합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하도록 마련되는 자리이며 성회에서는 세계선교 원수를 위한 선교 전략, 북한 선교 전략, 힌두교·불교 선교 전략, 21세기 선교 흐름과 선교 전략 등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소개된다.

참가대상: 목회자 및 선교사, 교회 선교 위원, 선교 관심자 및 일반 성도들, 일반 등록비: \$80, 선교사 등록비(\$60), 18일 오후4시 등록, 식사 및 책자 제공, 호텔은 개인 예약 Anaheim Park Hotel, Fullerton, CA / 714-992-1700 / www.anaheimparkhotel.com
등록: 인터넷 등록 www.gimnet.net/reg2010IPCAN, 직접등록: 은혜한인교회
문의: 이성철 목사 714-767-8234 (지재일 기자)

미주대신총회 목사 임직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총회 미주노회 목사 임직예배를 지난 9월 10일 미주대신신학대학에서 드렸다. 이날 수지양 선교사, 유정숙 전도사, 이경신 전도사 3명의 여성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예배는 류당열 목사(미주대신신학대학 총장)의 사회로 최숙영 사모의 특별찬양, 미주대신신학대학 교수 이원갑 목사의 축사, 이동희 목사의 권면, 박병

구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물을 태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호 목사(미주대신신학대학 학장)는 목회자로 한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라며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에 전념하라고 권면했다. 축사를 전한 이원갑 목사는 목



회는 내가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며 사도 바울과 같이 뿌리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대신신학대학 가을 학기는 9월 13일(월) 오후7시 개강예배 및 강의를 시작한다. 28일(화) 오전10시에는 중앙루터 바울과 같이 뿌리 깊은 사명감으로 항상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대신신학대학 가을

〈지재일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제2회 KODIM 이민목회자

2010. 10.18(월) - 20(수) 2:00 PM

서부지역 컨퍼런스 2010

주제

이민교회 세우기, "또 교회 세우?"

2008년 제1회 컨퍼런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매쉬빌의 빌리그래프센터에서 200여명의 이민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 사역자 세우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제 2010년 제2회 컨퍼런스는 “이민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서부지역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 강사들의 전체강의와 코디머들의 분야별 workshop, 그리고 참석하시는 사역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대형교회 중심의 성공적인 이야기보다는 소형교회 중심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꿈꾸는 사역자와 섬기는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장소: 선한목자장로교회 (Korea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 California 91748 (L. A. 근교)
Tel: (626) 965-3443 http://sunhanchurch.com
대상: 이민교회에서 전임(FullTime)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부교역자도 해당됨)
접수: 선착순 50명 (8.31일까지) (www.kodim.us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등록)
접수시, pay to "KODIM" check, 최근 주보1장,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등록비: \$100.00(숙박을 위한 호텔이 필요한 경우, 2인1실 2박에 \$50추가하여 \$150을 보내주세요)
문의 및 접수: 늘푸른선교교회 (구경모 목사, Tel: 714-743-3402)
Mission Community Church (Kodim)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 주강사**
임형천 목사 (나성영목교회)
- 주강사**
박광철 목사 (조이헬로교회)
- 주강사**
고태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 분야별 주제 및 강사**
"이민교회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창조영성" - 오정택 목사 (L. A.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이민교회 성도를 위한 치유와 상담설교" - 권석균 목사 (아를란타 지구교회)
"이민교회 셋방에서의 효과적인 전도전략" - 최성은 목사 (매쉬빌 다리봉성교회)
"이민자(교회)와 선교에 대한 성서 & 신학적 접근" - 김신일 목사 (달라스 연합교회)
"이민교회의 차세대 목회전략" - 김성찬 목사 (버팔로 새소망장로교회)
"인터넷을 통한 한인교회의 네트워크 선교 전략" - 김동욱 목사 (앤버 한인교회)
"이민신학: 이민목회를 위한 삼위일체론적 접근" - 구경모 목사 (L. A. 늘푸른선교교회)



주최 : 코딤(KODIM, KOREAN DIASPORA MINISTRY, WWW.KODIM.US) - 멘토 그룹 : 한기홍 목사, 정인수 목사, 박광철 목사, 고태형 목사
- 코디머(전문위원) : 오정택 목사, 최성은 목사, 권석균 목사, 구경모 목사, 김성찬 목사, 김신일 목사, 신현철 목사, 박연담 목사, 김동욱 목사

하나님의 SIGN '새한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Spiritual Service), 사랑 넘치는 친교(Intimate Fellowship),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God's Mission), 차세대 돌보고 키워가는 양육(Nurturing Second Generation). 하나님의 'SIGN'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다. 이 땅에 '하나님의 표적(SIGN)이 되고 하나님 표적(SIGN)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초대 교회를 롤모델 삼아 본질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새한교회와 정세훈 목사를 만났다.

-교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1978년 1월 8일 80명이 모여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통합)가 처음 구성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80년대부터 비록 작지만 자체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역사가 긴만큼 교회에는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온 분들의 믿음의 계승이 강한교회입니다. 그동안 네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담임하셨고, 저는 다섯 번째 담임목회자입니다.

-2009년도에 부임한 것으로 압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요.

사역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느끼지만 역시 예배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목회방향의 롤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면 지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목회를 한지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루 쉬었습니다.

물론 사역이 바쁘기도 하지만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자 욕심을 내다보니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한주간의 새벽기도 말씀이나 수요예배 주일예배 성경공부 등에서 다른 말

정세훈 목사 "예배와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새한교회 담임 정세훈 목사. ©지재일 기자

씀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겠지요.

예배와 말씀 사모하여 은혜

를 받으면 그들이 증거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소들로 신앙인들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늘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공급은 예배에서 이루어 집니다. 예배와 말씀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비전처럼) 'I-Intimate Fellowship' 사랑 넘치는 친교입니다. 성도들간 수평적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G-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N-Nurturing Second Generation 차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입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초대교회를 뜻대삼아 갈 때 그 비전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했듯이 초대교회가 롤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세상을 찬미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게 너무 귀합니다. 백성의 일부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동하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데리고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의 성숙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성숙하면 결국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교회를 진정한 시각으로 보고 '맘에 안들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해서 아닐까요?...또한 목회 윤리

S-Spiritual Service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사임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주변 30마일 내에서 다시 목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비전 중 하나인 2세대를 위한 양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2세대들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2세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때문에 1.5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2세대의 달란트를 개발할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한교회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차세대들의 더욱 자라나서 커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면 교회 본당보다 교육관을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2세대를 위한 전일교육자를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니 성장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2세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사임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주변 30마일 내에서 다시 목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비전 중 하나인 2세대를 위한 양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2세대들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2세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때문에 1.5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2세대의 달란트를 개발할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한교회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차세대들의 더욱 자라나서 커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면 교회 본당보다 교육관을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2세대를 위한 전일교육자를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니 성장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2세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사임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주변 30마일 내에서 다시 목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비전 중 하나인 2세대를 위한 양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2세대들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2세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서로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때문에 1.5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2세대의 달란트를 개발할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한교회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차세대들의 더욱 자라나서 커질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면 교회 본당보다 교육관을 먼저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2세대를 위한 전일교육자를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하니 성장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2세

크리스천은 왜 글을 써야 하나?

세리토스장로교회 '세글터' 동호회서 박요한 목사 강의

"글을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적적하실까 글 좀 썼으니 보시고 기뻐해 주세요'라고. 기독교는 타종교의 고행이나 육체적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사

람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요 목사)의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세글터'에서 지난 11일 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박요한 목사

미주개혁신학대 총장)는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목사는 "성경의 용어들은 모두 시어이기 때문에 함축적이고 시공을 초월한다"며 "우리가 그런 글을 쓰기 원한다면 생각과 마음이 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리토스장로교회 세글터 모임은 한글 문학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매달 정기모임을 가지며 자체적인 작품 활동도 하는 등 교회

내 교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11일 모임에서는 이초혜 권사의 시와 시조, 유창준 장로의 현대시, 김용현 자로의 수필이 소

개되기도 했다. 세글터 9월 둘째 모임은 오는 25일(토) 오전 10시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예배'를 Ralph Clark

Regional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문의: 213-300-1115(세글터 김용현 장로)

(박상미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본교는 이민교회와 세계선교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할 전임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임교수 모집 공고

지원 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채용 후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 구약학, 조직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구비 서류

- 이력서 ※ 학력, 경력(교회, 학교, 사회 활동 사항), 학문적 관심 분야, 출판물(academic publication), 참고인(reference) 3인의 인적사항 등이 필히 기재되어야 함
- Ph.D. 학위 사본
- 학위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통
-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 신앙고백서(1~2 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접수 마감일

- 2010년 9월 30일(목)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 Tel. (562) 926-1023, Ext. 302

▶ 하늘경영 저자 대의그룹 회장 채의승 장로 간증전해

꿈으로 시작된 100개 교회, 자녀세대엔 1000개로

박사학위, 대기업 사장, 100개 교회 건축, 고교시절 3가지 꿈을 꾸었던 채의승 회장.

그는 올해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계선교를 위한 꿈으로 가득한 청년과 같은 모습이었다.

지난 5월 감사예배를 드린 일본 기타규슈교회(담임 강승훈 선교사)를 기점으로 73개 교회를 세운 채의승 회장은 “현재 인도, 필리핀, 멕시코, 에콰도르, 아이티를 이어 교회가 전혀 없는 B 불교국가에 80번째 교회를 건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100개 교회 건축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채의승 장로를 닮아 이제 그의 자녀들은 1,000개의 교회를 짓겠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

1984년 국내에서 시작된 교회 건축이 1991년에는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해외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현지인과 협력해 건축을 하고 있다. B 불교국가의 경우, 채 장로의 저서 ‘주께 하듯 하라’를 영여

번역본으로 읽었다는 한 크리스찬 자매의 편지 한통이 계기가 됐다.

교회가 없는 흑암의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는 기도제목을 전했던 것이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대의그룹 채의승 회장(화양감리교회)을 초청해 지난 9일에서 12일까지 간증집회 및 하늘경영 세미나를 전한 후 곧바로 B 불교국가로 날아가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1년간 휴가기간이 없이 추석, 설날, 여름휴가 여유가 있을 때 모두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해 기업인 최초로 세계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100개 교회 건축과 함께 선교사 위한 세계선교센터 건축 계획

“해외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해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선교사 자녀가 10년간 동네에 있

는 한 레스토랑에서 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면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을 꼭 대접하곤 합니다.”

채의승 장로는 100개 교회 건축과 함께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문제, 안식과 재교육이 필요한 선교사들을 위해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선교는 생명을 걸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채의승 장로는 “평생 100개 교회 건축을 넘어 자녀세대에서 1,000개 교회 건축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 야 기업 경영 성공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또한 명철한 지혜, 때마다 오는 행운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경영이 성공될 수 없습니다.”



대의그룹 회장 채의승 장로.

대의테크, (주)MGS(My Great Shepherd), 한산, 대의인테리어, 선엔지니어링, 대의피앤 등 12개 회사를 거느린 대의그룹을 경영하며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던 채의승 장로는 “기업 경영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지낸 그는 1985년에 부도 직전에 처한 회사를 인수, 대의테크를 창업했다.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만 기대했던 채의승 장로는 1987년과 1991년 상상치도 못했던 대홍수와 화재가 발생했으며 99년에는 대우 부도의 여파로 인해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회사 직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회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항상 회사 모든 직원들에게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니 직원들도 교회를 다니는 장로의 신앙에 감명 받아 위기의 사태를 절호의 기회로 삼게 됐다.

▶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갔다는 채의승 장로의 부모. 집과 교회간 약3킬로미

터 거리를 걸어 새벽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샘물을 길러 담임 목사님의 강대상과 교회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아버지는 새벽종을 치곤했다.

채의승 장로는 “우리 6남매 형제들은 새벽기도에 늘 성신했던 부모님의 기도응답”이라며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모의 뿌리 깊은 신앙을 본받아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 약 560여명 모두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드린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제외한 날에는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렸다”며 당시 은혜롭게 드리던 가정예배를 회상하기도 했다.

(지재일 기자)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24절)'

교회서 'Happy Together'

주님의교회 2010 새생명축제 훈훈한 마무리

예배당에 들어서니 디너테이블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예쁜 꽃과 양초가 분위기를 돋우고 맛있는 음식이 연이어 나온다. 빨간 나비넥타이에 앞치마를 두른 웨이터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 서비스로 손님들의 필요를 채운다.

언뜻 보면 일반 레스토랑에서 있을법한 모습이 교회 예배당 안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손님들은 주님의교회(담임 김병학 목사) 성도들에게 초대받은 새신자들이고 웨이터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장로와 집사들이었다.

편안한 저녁식사와 함께 재미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제이크 조 집사. 이벤트회사 전문 MC인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영혼들의 마음을 한껏 열어주었다.

그리고 CCM계의 대표적인 사역자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야곱의 축복'을 불렀다.

주일학교 어린이의 피아노 연

주도 있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지만 오늘은 아들의 초대를 받아 부담 없이 교회에 왔고 아들의 연주를 들었다. 온 김에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중고등부 학생의 대표기도도 있었다. 믿지 않는 그의 가족들은 초대 받아 간 자리에서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주님의교회가 10일 개최한 새생명축제 'Happy Together'는 이렇게 진행됐다. 김병학 목사는 “새로운 영혼들을 초대하는 외부 행사인 것 같지만 우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을 교회



새생명축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축복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 지재일 기자

로 인도하는 자리”라며 “교회에 와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부담 없는 축제가 되길 원했다”고 말했다.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한 복음주의를 표방하나 새로운 영혼들

에게는 더욱 문턱을 낮추고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교회는 앞으로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작정이다. 김병학 목사는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부

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자들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성도들과 힘을 합쳐 꾸준히 불신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란다. (박상미 기자)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 예배 순회 일정

- 7월 25일(주일) 오전 11:00 - 구세군나성한인교회 · 933 S. Hoover St, L.A, CA 90006 · (213)480-0714
- 8월 1일(주일) 오전 10:30 - 미주성산교회 · 1111 W. Sunset Bl, L.A, CA 90012 · (213)975-1111
- 8월 8일(주일) 오전 11:00 - 스타튼반석장로교회 · 4445 Quashnick Rd, Stockton CA 95212 · (209)957-9191
- 8월 8일(주일) 오후 1:30 - 카스트로벨리에덴장로교회 · 2490 Grove Way, Castro Valley, CA 94546 · (510)538-1853
- 9월 11일(토) 오전 11:30 - 다락방 교회 · 5319 N. Halifax Road Temple City, CA 92780 · (818)484-6019
- 9월 12일(주일) - 소망선교회 · 10400 Jelzah Ave, Northridge, CA 91326 · (213)507-6161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사랑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후 2:00 - 축복선교회 · 70328 29th Palms Hwy, 29, Palms CA 92277 · (760)367-2619
- 10월 17일(주일) 오전 10:0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성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V.)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지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이혼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양성하는 '캘리포니아라노대학'



데이비드와다총장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복음화를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을 위한 신학교가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 일본을 깨우칠 일본인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다. 다름 아닌 캘리포니아라노대학교(California University Lano: 총장 데이비드 와다). 이 대학의 설립총장은 바로 한국인으로서 일본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최초로 일본 신학교를 설립한 데이비드 와다 목사이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두어 가던 그는 부동산 투자 사업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은 나이 50이 넘었을 때였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새로 집을 얻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지갑에는 단돈 1불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는

하는 목사님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일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는 목사가 되어 일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7개월 후 하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 일본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는 또 다른 계획을 보이셨다.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신학교를 세우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캘리포니아라노대학교는 일본인을 위한 신학교와 기독교상담학이 주가 되어 운영되어 왔다. 현

재는 종합대학으로 확대해 가는 중이며, 362에이커 부지에 단독 학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일본은 공식적인 우울증 환자가 백만이고 숨어있는 환자가 60만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가 나빠지면서 30~40대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다면 일본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4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동안 졸업생 중에는 7명의 일본인 헌신자들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 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위한 선지자들을 길러 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라노대학교는 학교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신학과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다. "전 학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꿈이 있으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남들과 다른 창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

데이비드 와다 총장 "일본을 깨우칠 일본인 목회자들을 양성"

더 좋아했던 것처럼(히11:24~25) 와다 총장은 젊은 시절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두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육영수 장학금으로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메이지대학교와 나고야대학원을 졸업한 후 귀국의 권유를 받았지만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제학 공부를 더 하게 된다. 이 후 일본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바로 이때 일본국적도 취득하게 됐다. 일본국적자가 아니면 교수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직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이어 미국 파견근무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 통관회사를 운영하며 성공을 거

일본에서 지낼 당시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며, 때로 담임목사가 없을 때 설교도 전하며 나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미국에 와서도 집사와 장로로 교회를 섬겼다. "주변에 기도해주시던 권사님이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출석하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구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를 보고 '목사'라고 부르시더니 목사 안하면 죽는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싸인은 있어왔다. 그러나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산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목사는 되어야 하는데 신학교 갈 돈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기도원을 운영

에 순종한 데이비드 와다 총장이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젊은 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름다운 젊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라노대학교는 일본인을 위한 신학대학으로 시작, 현재는 히스패닉 학생들도 상당수 공부하고 있다. 장차 한국 학생들도 모집할 계획이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용하지만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

주소: 520 North Brookhurst Street Anaheim, CA 92801-5206
전화: 714-490-0065

(박삼미 기자)

피드몬트대학교 새로운 경영진으로 국제대학 변모

피드몬트대학교(Piedmont University: 총장 Dr. William Stinde, 이사장 Dr. Paul Kang)가 미국인 경영진을 새롭게 보강, 국제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별히 경영대학원을 추가로 개설해(내년 1월 예정) 종합대학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피드몬트대학교는 지난 9월 4일 오픈하우스를 마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미국 내 학생 및 해외학생 1만 여명을 모집할 의사를 밝혔다.

William Stinde 총장은 "지난 10여 년 전 피드몬트대학교는 신학, 교육, 의학, 음악, ESL등의 학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남부캘리포니아에 세워졌다"며 "내년 1월에는 경영대학원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lliam Stinde 총장은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모든 경영대학원 수업은 세계 각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일을 위해 경영대학원의 국내, 국제 인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드몬트대학교는 내년 1월 추가될 경영대학원을 제외하고 신학대학, 교육대학, 음악대학, 선교대학, 한의과대학, 유아교육대학, 언어대학(ESL) 등이 개설돼 있다.

피드몬트대학교: 10900 S. Vermont ave LA, CA90044
교무처: 323-777-5269(Dr. Arnold Sock)
(박삼미 기자)

피드몬트대 새로운 경영진으로 국제대학 변모

피드몬트대학교(Piedmont University: 총장 Dr. William Stinde, 이사장 Dr. Paul Kang)가 미국인 경영진을 새롭게 보강, 국제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별히 경영대학원을 추가로 개설해(내년 1월 예정) 종합대학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피드몬트대학교는 지난 9월 4일 오픈하우스를 마련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미국 내 학생 및 해외학생 1만 여명을 모집할 의사를 밝혔다.

William Stinde 총장은 "지난 10여 년 전 피드몬트대학교는 신학, 교육, 의학, 음악, ESL등의 학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남부캘리포니아에 세워졌다"며 "내년 1월에는 경영대학원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lliam Stinde 총장은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필요성에 따라 모든 경영대학원 수업은 세계 각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일을 위해 경영대학원의 국내, 국제 인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드몬트대학교는 내년 1월 추가될 경영대학원을 제외하고 신학대학, 교육대학, 음악대학, 선교대학, 한의과대학, 유아교육대학, 언어대학(ESL) 등이 개설돼 있다.

피드몬트대학교: 10900 S. Vermont ave LA, CA90044
교무처: 323-777-5269(Dr. Arnold Sock)
(박삼미 기자)



피드몬트대학교 새로운 경영진

'베다니부활의집' 기도하며 건강 상담도...



사무엘 유 목사

LA 코리아타운에서 홈리스 사역을 했던 사무엘 유 목사가 베다니부활의집(50035 W. 280th Lancaster, CA 93536) 원목으로 부임, 기도원 방문자들에게 건강 상담을 시작한다.

사무엘 유 목사는 기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또한 어떤 부분에 관리와 영양보충

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조언한다. 특별히 다년간 비타민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결과로 건강 관련 비타민 및 영양보충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유 목사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긴다는 생각으로 한다"며 "특별히 기도원으로 오시면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해 주고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나빠진 영향으로 푸드뱅크 두 곳이 문을 닫아 홈리스 사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도원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로 섬김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661-390-0877 (사무엘 유 목사)

(박삼미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재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새벽강단 II] 씨나사이드교회 새벽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복선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 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

힘 하신다"며 "일신적으로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전했다. <본문: 이사야 38장 1절~8절> 38: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

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38: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38:7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복선을 깔아 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이기 위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란에 환란을 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위한 시험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의도된 복선을 아는게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의 수한에 십오 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8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응답하셨으면 끝인데 그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해시계를 실패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왜 입니까? 징조와 성취를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시계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주적 질서를 변경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상당되어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싸인이 크게 나타난 경우가 오늘날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싸인과 징조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징조와 싸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씀하신 하나님의 복선이 보이십니까? 위기의 복선을 잘 지켜낸 히스기야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위기의 복선으로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생의 굴곡을 통해 결국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선을 알 수 있고...이것을 잘 통과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도를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박삼기 기자>

'축복위해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 믿음으로 극복하라'

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새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는 씨나사이드교회(담임 조인수 목사)는 더 큰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새벽기도회에 두고 있다. 조인수 담임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때를 준비하고 있다. 조인수 목사는 17일 새벽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위기의 복선으로 시

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38: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8: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38:4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8: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38:8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받은 응답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8장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



조인수 목사.

새 학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9월 가을학기를 맞아 자녀들을 위한 'Back to School'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크로스로드교회(담임 전길성 목사)도

자녀들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크로스로드교회 성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전길성 목사는

"학교가 영적 전쟁터 같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학기를 잘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삼기 기자>



전길성 담임목사는 참석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글로리아여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글로리아여성합창단(단장 유정기)은 12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합창단은 '글로리아여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를 12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었다. 합창단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과 한국 가곡, 가요 등의 곡을 연주했다. 연주회를 위해 미주한국청소년예수단에서 찬조출연해 '따스한 눈으로' 등의 합창곡을 선보였다. <지재일 기자>



글로리아여성합창단. ©지재일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9월 2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프로모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트)

“코란 소각 소동 대신 ‘십자가’ 전했다더라면...”

지난 11일 9.11 테러 9주년을 맞은 미국은 여느 추모 해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바로 그라운드 제로 모스크 건립 건과 함께 불거져 나온 코란 소각 소동으로 한차례의 긴장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는 이로, 싸움은 싸움으로 대면하는 세상적 방식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온다. 그러나 세상의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섬김, 사

시까지 새교회에서 진행됐으며, 하나님의 존재 증명, 다원주의 사회 속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등 변증학적 강연이 주를 이뤘다. 영어권, 한어권 65명의 참석자가 참석해 귀를 기울였다.



리폼스신학대학교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나 빈 마음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

망에 관하여 물어오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변증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믿음에 대한 이성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마치 말을 몰 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우리가 믿음을 변증할 때, 비 기독교인 보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눈 뜨지 못한 영적 세계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다만 잘못을 한 경우 꼭 상대방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사해됐다고 말하라. 당신의 인성과 선함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죄를 덮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도 했다.

(권나라 기자)

RTS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 신학세미나 강연서 유감 표명

같은 날 새교회에서 열린 'Live Out Loud' 신학세미나에서 강사 윌리엄 데이비스 교수(리폼스신학대학교)는 “코란을 태우는 발상은 기독교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의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들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해 코란 소각 소동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세미나는 11일 오전 9시부터 4

데이비스 교수는 먼저 “변증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비 기독교인들에게 이성적인 접근방법을 제시, 이성을 통해 믿음의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의 학문”이라고 설명

스티븐 호킹, 이번엔 “신학은 불필요하다” 주장

새 책 '위대한 설계(The Grand Design)'에서 우주가 신 없이 스스로 창조됐다고 주장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68)가 “신학은 불필요하다”고 재차 선언, 그의 새 이론으로 인해 이미 촉발된 논쟁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호킹 박사. ©Wikipedia.fr

이상의 것이 존재하는지, 또는 왜 자연법칙이 지금과 같은지 등의 질문들을 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왜 당신의 책이 사람들의 강력한 반응을 낳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란 킹의 질문에 “과학이 종교의 분야였던 질문들에 점점 더 대답하고 있다”며 “과학적 설명은 온전하며 신학은 불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호킹 박사의 새 책에 담긴 무신론적 우주 기원에 대한 설명은 이미 책의 출간 전부터 세계의 많은 창조론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영국과 미국의 창조론 단체들은 호킹 박사가 과학과 신학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과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선 인터뷰에서 드러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란 식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왕립연구소장을 지낸 수전 그린필드 옥스퍼드 링컨대 학 교수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학이 (일부 학자들의) 오만에 의해 종종 시달린다”며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를 인용,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탈레반과 같은 행동”이라고 맹비난하고, 호킹 박사를 향해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주장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호킹 박사의 주장은 그동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물리학계의 오랜 전통을 깨고, 본격적으로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진 신’ 등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를 비롯한 무신론자들은 호킹 박사의 새 이론을 ‘물리학계의 진화론’에 비유하며, “호킹 박사가 물리학계의 신의 존재 논란을 결말지를 결정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순헌정 기자)

이란 교인들, 재개종 거부로 시형 위기

이란에서 세 명의 기독교인들이 시형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현지 기독교 언론이 보도했다.

이란 파르시 크리스천 뉴스 네트워크(FCNN)는 스티븐과 그의 아내 마리아, 예산 베흐루즈 총 3명이 지난 7월 28일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체포돼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마쉬하드에서 보즈누르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체포된 이들은 함께 체포된 15명의 교인들이 이슬람으로 재개종하면 풀려 주겠다는 당국의 강요에 따라 신앙을 포기한다는 서면 약속을 하

고 풀려난 뒤에도 계속 남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

약 50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당국은 고문과 독방 수감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들에게서 재개종 동의를 얻어내기를 시도했으며, 이들의 가족들까지 설득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서는 배교 혐의를 부과 받고 이슬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이들 교인들과 가족들에게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교 혐의를 부과할 것이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순헌정 기자)

인도네시아 교인 2명, 교회 가던 중 피습

복음주의 교회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독교인 2명이 주일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괴한들에게 습격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현지 시각) 자카르타 바탁개신교회(HKBP) 인근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괴한들은 교회로 향하고 있던 한 교인을 칼로 찔러 배에 중상을 입혔으며, 이 교인을 도우려던 목회자에게

도 역시 둔기를 휘둘러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혔다.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지시로 지역 경찰 당국이 즉시 수사에 나선 상태인 가운데, 교회측에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하도록 강요해 온 이슬람 강경 단체 이슬람수호전선(FPI)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교회 폐쇄를 요구하며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폭행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순헌정 기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

초청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성제일장로교회와 통합을 이루고 아래와 같이 통합 감사 및 박일영 목사 위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교우 일동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위임국장 김국진 목사

통합 감사 및 박일영 목사 위임 예배

일시: 2010년 9월 19일(주일) 오후4시
주관: 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장소: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374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 323-733-2922(교회) 818-281-3505(목사)
E-mail: kupcla.com, ilyoung9@gmail.com
* 화환이나 축의금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욱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7:30,
 (수) 오전10: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10:3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슨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앙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213)249-9191 / F.(213)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양)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교계 지도자들, 한국미래포럼 기도회서 요청



오는 11월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국민기도회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힘 모으자”

한국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기도회는 개회행사는 식전행사 및 기도회,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방지일 목사(고문·영등포교회 원로)를 비롯해 조 용기 목사, 이광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주요 교계 지도자들과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이재오 특임장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

(전 3:1-11)는 제목으로 조 목사는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국위가 선양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때가 왔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제 한국 모든 사람들은 가슴 속에 지구를 끌어안은 꿈을 꾸고, 교회도 그러하다”며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국가가 될지 상상이나 했는가”라고 전했다.

조 목사는 또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 허덕이는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가볍게 이겨내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지도자이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어른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나라를 이끄니 모든 일이 잘 된다”며 “지도자가 살아나면 온 국민이 잘 되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G20 정상회의 성공과 국가번영을 위하여(김영진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황우여 의원)’, ‘다함께 기도했다. 또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하여(김요섭 목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백도웅 목사)’,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김봉태 목사)’ 기도했다.

이어 사공일 위원장은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G20 정상회의를 맞아 우리나라의 역사와 시민의식 수준을 전세계에 알려 국격을 높일 계기로 활용하자”고 영상으로 인사했다. 이재오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유치를 성공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며 “이 뜻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광선 대표회장과 지역 목사(한기총 증경회장)는 격려사를 전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지난 8·15 대성회에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1백만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

며 “우리가 대회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까지 이뤄주시길”이라고 밝혔다.

앞선 식전행사에서는 길자연 목사(대표대회장·한기총 증경회장)가 대회사를, 최성규 목사(상임대회장·한기총 증경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길목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기원 국민기도회를 통해 이사야 6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역사가 이 나라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으며, 최 목사는 “제일 힘든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제일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고 이렇게 국위가 선양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감격해했다.

성명서 발표로 기도회는 마무리됐다. 장은화 장로(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가 낭독한 성명서는 한국교회를 향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되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과 선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용 기자>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10월 13~16일 여의도서

한국 기독교의 복지 역량과 대사회적 섬김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독교사회복지 EXPO 2010’이 오는 10월 13~16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다.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조직위원회는 10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 대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밤을 열고,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은 “섬기는 기쁨 나눔의 행복”을 표어로, 마태복음 5장 16절로 주제성구로 하며,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 조직위원회 주관 및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주최로 열린다. 특히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눅 6:38)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한국교회가 120여년의 시간 동안 많은 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큰 부흥 성장을 이뤘음

조직위, 섬김과 나눔의 밤 열고 후원 요청

을 주지하며, “이제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이번 엑스포가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기독교사회복지EXPO 2010은 한국교회

가 주님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행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직위원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사역을 다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에는 따뜻한 격려를, 새로운 복지사업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와 단체에는 힘찬 용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알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빈부 격차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 및 소외 현상, 이념과 세대간 대립이라는 민족의 어려움과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한국교회의 응답으로서 열린다. 주최측은 “이제 교회의 사랑 실천도 전근대적 구제와 자선의 차원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엑스포는 이러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모델들을 제시하



고 조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2개 지부 형태의 조직을 활성화하고 전북과 제주 등의 신설과 광역시도 단위의 조직을 분리를 구성하고, 광역단위별로 엑스포 준비를 위한 조직을 세미나와 함께 하의상달 형태의 지역사회의 교회봉사를 구축한다. 더불어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의 교회봉사단을 시범적

으로 구성 운영한다.

기독교가 관련되어 사역하는 사회복지 영역과 대상자별 조직을 확대하여 연합회를 구성,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교회 연관을 더 공고히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탄탄히 세운다. 국제학술대회 및 복지분야 별 세미나, 목회자대회, 여성대회, 사회복지인대회 등을 통해 각 영역별로 전문적인 네트워킹과 이론 및 실천방안 논의를 갖고,

전시행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행사 등의 다채로운 시간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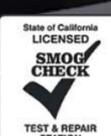
한편 이번 기독교사회복지 EXPO 2010에서는 한국교회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을 계량화하여 통계를 종합적으로 담아내 교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와 관계기관에 배부하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을 객관적 수치로 발표한다. <류재광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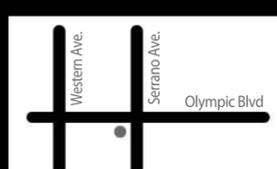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2010 뉴욕 십자가대행진 시작

14일 맨하탄에 이어 15일 플러싱 퍼레이드

2010 뉴욕 십자가대행진이 13일 오후 8시 30분 만국교회(구 뉴욕주찬양교회, 담임 김희복 목사)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김영환 목사(진행위원장)가 예배를 인도했으며 디아스포라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노기승 목사가 기도하고 이희선 목사(대회장/뉴욕전

도협회 회장)가 개회선언 및 인사를 전했다. 이어 리차드 기브슨(Richard Gibson), 찰스 아세라(Charles Asare)가 간증했으며 월드밀알선교협창단 찬양에 이어 박소피아 목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유진웅 단장(뉴욕 미션오페스

트라 단장 및 지휘자)이 특송했으며 김연규 목사(예배분과위원장)가 헌금, 박성원 목사가 광고, 신현택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회 회장)가 축도했다.

13일 집회는 만국교회(담임 김희복 목사)에서, 14일 집회는 나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15일 집회는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맨해튼 41St.&7Ave.(지하철 7번 타임스퀘어 종점)에서 브로드웨이를 따라 코리아타운 32가까지 십자가 행진을 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는 플러싱 공영주차장에서 메인 스트릿을 거쳐 다시 공영주차장까지 행진했다. 행진은 인도를 따라 행진도중 전도지를 나눠주고 메시지를 전했다. <오상아 기자>

전통교회의 허물을 벗고 메타교회로 탈바꿈하라



2008년 세미나에서 강의한 정인수 목사

연합교회 목회 노하우와 비전 나누는 컨퍼런스

메타처치로 혁신해 나가는 과정을 나누며, 그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교회를 혁신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마음이 짐과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나누

기도 했다. 지난 강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대부분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했던 이들은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상황들을 함께 의논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세미나에서 다뤄질 내용은 ▶전통교회에서 메타교회로 탈바꿈 ▶균형 잡힌 말씀과 성령의 목회 ▶역동성 있는 다양한 예배 모델 ▶160개의 팀 사역이 가동되는 역동적인 평신도 사역 ▶120개의 가정 공동체(셀그룹)로 모여 생명력 있는 사랑의 교제 ▶여성들의 주중 치유사역 ▶새로운 차세대 목회 패러다임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이들은 참가비 50불과 교통비만 부담하고, 숙식과 모든 자료는 연합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등록마감은 9월 30일까지며, 신청서는 www.yunhap.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권혁래 전도사(770) 605-1921 <박현희 기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연합할 때



김종필 목사 목회자 세미나 성료

이제는 Glocalization의 시대

1800년대 까지 흘렀던 서구 중심의 선교 역사는 19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흐름은 아프리카, 남미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정형화된 서구적 교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각 지

역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 색깔이 가미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

아프리카인들은 5시간 내지는 8시간 동안 춤과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새벽 기도', '부흥회'는 서구인들에게는

없었던 특이한 신앙의 모습이다. 나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때

복음주의 교인들에 비해 오순절 교인이 수적으로 3배나 많다. 지금은 강한 성령 역사가 임하는 때이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

공회, 오순절 등이 아니라 장로교-오순절(Presby-Costal), 감리교-오순절(Metho-Costal), 침례교-오순절(Bapti-Costal), 성공회-오순절(Angli-Costal)로 교단이 분류될 정도이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현상들을 편견 없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연합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우리가 때와 시기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이미 있었고 벌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분석해서 귀납해 보면, 지금의 때가 참 중요한 때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세상이 극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겸비하여 이 중요한 때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헬렌 기자>

자마 24일부터 워싱턴 지역 전국기도순회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 대표 김춘근 교수가 지난 8월 15일 '제3차 자마 전국기도순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김춘근 교수는 가족과 함께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1994년 42일간 자동

차로 12,000마일 이상 다니며 각 도시를 위해 중보하고 미국의 영적 각성과 회개, 부흥을 간구하며 전국기도순회를 이어갔다. 1998년에는 김춘근 교수 부부와 강운영 목사가 80일간 2만 마일 이상을 운전하며 제2차 중보기도 순

회를 마쳤다. 이 두 차례의 중보기도 순회가 JAMA의 결성과 설립에 중심이 되었다. 제3차 자마 전국기도순회는 8월 15일부터 175일간 40개 주를 순회하며, 각 지역 교회, 학교 등과 연합해 미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중보기도자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제3차 자마 전국기도순회는 9월 23

일에는 Johns Hopkins, 24일에는 Georgetown, 25일은 MD(새소망교회 예정), 26일은 VA(온누리드림교회), 27일과 28일은 Virginia Tech에서 진행된다. 26일 오후 5시 온누리드림교회 애난데일 성전에서 열릴 기도순회는 워싱턴 교협에서 후원하고 있다. <조요한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소셜네트워크 교회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IT기술은 구글 검색으로 대표되는 정보중심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삶의 형태로 한걸음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왔다.



페이스북 방문자 수 점유율은 지난 3월에 구글을 추월하고 단 수개월 만에 1억 명 신규 회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facebook.com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50세 이상 미 노년층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42%나 됐다. 이제 미국은 2,30대만이 아닌 전 연령대가 소셜네트워크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페이스북 방문자 수 점유율은 지난 3월에 구글을 추월하고 단 수개월 만에 1억 명 신규 회원이 추가되기도 했다.

국내활동만 주로 하는 한국 한 젊은 연예인이 최근 4개월 만에 1백만 명의 해외 팬이 페이스북을 통해 들어왔다는 기사가 나왔다. 페이스북이 9월경에 인터넷 사상 처음으로 구글을 따돌리고 전세계 사용자 점유율 10%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폭발적 성장세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봐야하나

현 시대에서 IT의 발달은 향후 복음을 실어 나르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데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향후 IT기술은 이제 선교적 측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가 기술의 발달을 반대하는 네오러디칼리즘을 벌이고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루가 다

르게 변하고 있는 IT기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IT의 현재 최대이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

최근에서야 '소셜 목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에 저해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마나 깊게 파고들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동기를 잃게 만들도록 위협할 수 있는지 경고했다.

그는 '5 Reasons Teens Are Avoiding Church' 글을 통해 "십대들은 이미 컴퓨터나 폰을 통해 서로에게 강하게 결속돼있다.

더 이상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

를 가지기 위해 교회를 다닐 필요가 못 느낀다"고 말했다.

2세 사역을 맡고 있는 한 북가주 한인목회자는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관리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표주자인 페이스북의 예찬론을 펼친다. 그는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남겨도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편한대로 살기 때문에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고 싶을 때 가끔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 교회 나오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무시할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의 '매일' 페이스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페이스북으로 자주 서로 교회 소식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대화도 오고 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이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어찌됐든, 이런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IT기술은 점점 우리 생활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악영향만 주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반응은 둘 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길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퍼졌다. 종교개혁시기에는 인쇄술을 통해 독일어본 성서인쇄본이 유럽전역에 퍼지면서 종교개혁사상이 생겨나간 것처럼 앞으로 이와 같은 IT기술이 복음전파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모른다.

(임형진 기자)

산호세 교협 신임회장에 김근제 목사 선출

산호세교회협의회(회장 우동은 목사) 제27차 정기총회가 13일 쿠퍼티노에 위치한 풍성한새빛교회(김근제 목사)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근제 목사의 인도로 드린 1부 예배에서 회장 우동은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절-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회장 우동은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 차기 27회기동안 협의회를 섬길 임원이 아래와 같이 선출됐다. 김근제 목사가 27회기동안 산호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일하게 됐다.

또한 서광원 목사(꿈이 있는교회), 조명환 목사(삼일침례교회), 김한호 목사(아이교회), 설훈 목사(코너스톤 커뮤니티교회)가 산호세교회협의회 신임회원으로 가입됐다.

회장 김근제 목사(풍성한새빛교회)
수석 부회장 김동욱 목사(산호세 제일교회)
부회장 박석현 목사(산호

세 한인장로교회) 부회장 김덕수 목사(갈릴리연합감리교회)

부회장 한태진 목사(대성장로교회) 부회장 강순구 목사(성령의 비전교회)

부회장 이주철 사관(구세군 은혜교회) 부회장 김경자 목사(순복음 생명교회)

총무 이주철 사관(구세군 은혜교회), 서기 함영선 장로(임마누엘장로교회), 회계 이성희 목사(예수 만남교회)

예배부장 김영련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 선교부장 임창모 장로(산호세 제일교회), 섭외부장 성수남 목사(샘솟는 교회), 출판부장 우동은 목사(산호세 주사랑교회), 친교부장 석정일 목사(시온영락교회), 신학부장 최영학 목사(은혜선교회), 체육부장 장호수 목사(새하늘 우리교회), 여성부장 김순연 목사(산타클라라 순복음교회), 교육부장 손원배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2세 교육부장 김여원 목사(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목회연구부장 윤상희 목사(산호세 성결교회), 평신도부장 이윤수 장로(풍성한 새빛교회)

(임형진 기자)

20개 이상 민족 대표 참여, 미국회복 부흥위해

제 6회 글로벌다민족 선교대회, 타이완 가나 안크리스천교회서 개최

제6회 글로벌다민족선교대회(대표 정윤명 목사)가 타이완 가나 안크리스천교회(Ralph Su 목사)에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미국내 다민족 커뮤니티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을 통한 성공적인 선교사역 발

표와 미국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다민족총연합회 주최로 올해 4월에 미국 주빌리교회에서 20개 민족이 모여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글로벌다민족음악회가 열리고, 6월에 10개 민족이 협력해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열렸다. 9월에 매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횡수로 6번째를 맡고 있으며, '협력'에서 '연합'으로 선교를 위한 보다 강력한 모임을 만들어지고 있다. 참가 민족은 러시아,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주빌리



지난해 10월 11일 뉴비전교회에서 열린 제 5회 글로벌다민족선교대회. 연합중보기도 장면.

교회 소속 베트남 교회, 파키스탄, 태평양 아일랜드, 스페인, 필리핀, 서남아시아, 몽고, 버마 등 20개국 ~30개국 참가할 예정이다.

2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26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26일은 미국 CCC 베이지역 대표인 다니엘

커렌가 목사가 미국 캠퍼스 사역을 보고할 예정이다.

글로벌다민족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패널토의는 25일 오후에 '미국의 회복과 부흥' 주제로 진행된다. 패널 사회자는 전 월넛크릭장로교회 담임목사인 덕 스트브스(Doug Stevens)

목사다. 그는 미국교회 교회성장학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리뉴얼 프로젝트 미국 선교본부장, 글로벌다민족선교대회 총무를 맡고 있다.

이번 패널토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민족 대표들이 참석한다. 한인교회 대표로 배상호 목사, 에디오피아 교회 솔라몬 목사, 타이완교회 랄파수 목사, 미국베델침례교회 캔 패튼 목사 등이 패널토의자로 선정됐다.

호세아 12:6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찌어다'라는 주제로 많은 여러민족이 미국회복위한 체인프레이어, 다민족 1세 2세가 어우러지는 찬양축제, 각 민족들의 선교보고, 미국의 회복과 부흥위한 다민족

대표참가 패널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참여해 선교보고와 함께 전자사진 촬영식으로 선교보고 부스가 소개될 예정이다.

베이지역 한인교회들도 참여한다. 임마누엘장로교회, 뉴라이프교회,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크로스웨이교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타이완 가나안크리스천교회 뿐 아니라 타이완 커뮤니티 교회들이 연합했다. 대회가 열리는 타이완 가나안크리스천교회는 베이지역 타이완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교회이다. 임마누엘장로교회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4405 Fortran Ct San Jose, CA 95134).

(임형진 기자)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워치-매리곤드 상가 2층 **일서+웨스턴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닥터살롬칼럼



살롬 김 박사
쉐퍼드대학교

크로스코드 (1)

“...예수가 직접 선택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쳤던 열두 제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예

수를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근심에 싸여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예정된 그 죽음을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죽음의)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살려 주소서'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끝내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망해 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예수 자신이 부활도, 메시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불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은 거의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 감히 말한다면 오히려

평범하고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불가사이하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의 그 불투명한 예수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와 같은 '황당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렇

게도 확고부동한 구세주의 상을 세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인공문은 어느 대학교의 교수이시며 스님이신 분께서 다른 대학의 종교 문제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하신 것이다. 스님의 당황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 사실 나도 이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교회 안의 불신자
사실 나는 불교와 유교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다. 초

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후 성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만만하게 전체를 열어 보여주지 않았다. 나는 교수님과 더불어 성가대원을 할 정도로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는 척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비둘기같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날까, 혹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까 하는 기적을 기대했지만 세례를 베풀던 목사의 손이 내 머리를 떠나는 순간에 느낀 허전함은 거의 배신감의 수준이었다. 그 어떠한 특별한 느낌도 없었다.

사실 세례를 받는 것은 엄청난 영적사건인데 영성이 없는 내가 그 영적사건을 육체로 느끼려고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였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그만큼 나는 엉터리였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거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불(佛)자와 불(不)신자가 알아야 할 것

등학교 때 불교 설화들을 재미있게 읽었고, 거의 매달 제사를 지냈다. 대학 때는 반야심경을 읽고 책주사공, 공주사색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우치고 깊은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나의 갈증을 풀어 주지는 못하였다. 대학 시절에 지도 교수님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도 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났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정체를 들켜지 않고 안전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으면

혹시 믿음이 생길까 하여 못이

김지성 칼럼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연구조도 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을 12개월로 나누는 단위로 산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Cyber Year 개념에 따라 3개월을 이전의 1년 정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날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가

되는 부정적 영향(죄악, 우상 섬김, 이교도적 사상 등)을 경고하 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한 시대를 주름잡는 최고의 문명, 문화, 구조들에게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셨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민감하기를 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저명한 저술가가 인생의 황혼년에 쓴 글입니다. "청년시기에 나는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다른 인생을 바꾸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년이 되어서야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바뀌어야 할 가장 분명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한 사람의 인생관, 삶의 철학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인생은 도태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세월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Cyber Year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세계에선 1년을 3개월로 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면 컴퓨터가 한 단계 진보되어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이에 의존하는 모든 산

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소유해야 할까요? 바뀌어가는 세상과 시대를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시대적 선구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극적인 방법으로 한 시대의 최고의 문화, 문명 그리고 학문을 그 백성으로 섭렵케 하시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굽), 앗시리아(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바사),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제국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모든 나라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을 통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시대를 향해서 닫힌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시대를 향해서 열려야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대에 영향을 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향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념,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면 신앙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 "보잘 것 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죠.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민규의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 중에서**

김한요 칼럼



김 한 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가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다.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니, 삼계탕에 여러 반찬을 준비해 오신 것이다.

사역자들 입에서 모두 탄성이 나오고, 집사님의 귀한 마음에 모두들 간절히 기도와 더불어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삼

우리 교회는 이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셨다. 수술 받기 전 마취주사를 맞을 때도 예배 중 받았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찬양을 2절까지 부르다가 마취 잠에 들었다 하신다.

삼계탕 기도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모든 사역자들, 오늘 점심은 다른데 약속하지 말고, 교회에서 드시도록 연락이 온 것이다.

"무슨 날인가?" "집사님 생신인가?" 모두들 의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할 말을 잃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앞으로 암 제거 수술을 받으면, 당분간 목사님들 대접을 할 수 없어서 수술 받기 전에 점심을 손수 만들어 간단하게(?) 대접하고 싶으니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점심을 기다려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때 점심약속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는 '이 점심은 먹어야 돼' 하고 다른 약속을 취소했다.

막상 점심 때가 되니, 남편 집사님이 밥을 뺄뻔 흘리며, 땀

계탕 처음 먹어본다"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올 때마다, 황송해 하는 집사님 내외분의 모습과 기뻐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수술받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가야하는데, 통증으로 너무 아파 진통제 주사를 맞고 교회 오셨다는 집사님!

한 번의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받기를 원했던 집사님은 목이 아파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하네 주의 교회를 행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과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바가벗겨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제목을 나눌 담대함이 생겼다고 하신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사역자들에게 건강 남아 있을 때 손수 식사대접 한 번 더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제 수술도 잘 받고, 퇴원하신 집사님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강력한 '삼계탕 기도' 힘을 느끼며,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환자 되어 누워계신 분이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이다. 부족한 목사에게도 이런 성도를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온다.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م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업일상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어름학기 속성 학생모집 (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자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일날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치 미역국 \$1.00 (1인당)
- 아찌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외도 의 사상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폰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폰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0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교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9월 2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까지 아이토크비비 하나로!

집에서는 아이토크비비!
밖에서는 아이토크글로벌!
한국가족들은 마이 코리아 넘버!

단, 9월 16일 ~ 9월 30일 가입자에 한함

무제한 통화의 자유를 누리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비싼 집전화 기본료 이제 안녕~

Residential Economic Plan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수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Verizon AT&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9시)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가인문의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용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발신할 때는 해당국에 대한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의 국제전화는 월간 기본요금에 포함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일시정지는 경우 \$69.99의 확인금 및 프로세스 기간 동안 발신 종료비용 합산에 부과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와 별도로 발송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언택트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유능한 한국인 남,여 세일즈 모집합니다.

- 자격 조건:
- 한국어, 영어 능통하신 분
 - 자동차 딜러 유경험자
 -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문의: **MS. SHAR**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9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165/3YR 12K T.D.O \$2,999
 O.A.C & PLUS TAX, LOYALTY INCENTIVE
 STK 132410

2011 신형 제네시스
\$379/3YR 2K T.D.O \$2,999
 O.A.C & PLUS TAX, LOYALTY OR COMP. INCENTIVE / STK 115602

2011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259/3YR 12K T.D.O \$2,199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STK 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155/2YR 12K T.D.O \$1,999
 O.A.C & PLUS TAX, INCENTIVE
 STK 093904

9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 | | |
|---|--|
|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 |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 |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